

노동정책연구

2004. 제4권 제4호 pp.1~20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대학 전공은 재학 중에 획득하는 숙련의 수준과 내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전공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특정 직업과 관련된 일부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첫 일자리의 이행기간이나 첫 일자리의 질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성차가 전공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전공의 임금 프리미엄 효과는 입학 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크게 감소하였다. 특정한 직업관련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학 전공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결과는 대학 교육이 인적자본의 형성이라는 역할보다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선별하는 역할에 치중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대학 전공,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 전공별 임금프리미엄

## I. 문제 제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세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할 만큼 우리 고등 교육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왔다). 대학 진학 수요가 정원보다 초과인 상태에서 고등교

투고일: 2004년 10월 20일, 심사의뢰일: 11월 15일, 심사완료일: 12월 5일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bh@kli.re.kr)

- 1) 대학교육의 팽창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고등교육 진학률 수준이나 증가 속도는 경제발전 단계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1990년 59.9%에서 2000년 63.3%로 증가하고, 일본이 1990년 36.3%에서 2000년 49.1%로 증가한데 비

육의 외연적인 확대는 대학 정원 확대를 초래한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1981년 졸업정원제의 시행은 학교수의 큰 변화 없이 1980년대 대학 졸업자의 급증을 가져 왔으며, 1996년부터 시행된 대학 설립준칙주의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정원 자율화 정책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유발하여 대학 졸업자의 재차 급증을 가져왔다.

〈표 1〉 고등교육 확대 추이

	진학률(%)			학교수(개소)			졸업생수(명)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	대학		전문대	대학	
1970	26.9	40.2	9.6	136	65	71			
1980	27.2	39.2	11.4	213	128	85	99,302	49,567	49,735
1985	36.4	53.8	13.3	220	120	100	192,511	73,927	118,584
1990	33.2	47.2	8.3	224	117	107	253,047	87,131	165,916
1995	51.4	72.8	19.2	276	145	131	323,739	143,075	180,664
2000	68.0	83.9	42.0	319	158	161	437,987	223,489	214,498
2004	81.3	89.8	62.3	329	158	171	493,944	226,886	267,05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고등교육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이나 경쟁력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출산을 둔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수를 초과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대학의 과잉 팽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2).

해, 한국은 1990년 33.2%에서 2004년 81.3%로 급증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9). 특히 OECD 국가 다수의 고등교육이 상당 부분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추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놀라운 것으로 평가된다(김형만, 2004).

-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구조조정과 재구조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안)(2004.9)」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 대학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95천명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 대학의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를 알릴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2005년에 도입하고, △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고, 연합대학 구성을 지원하며,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원 규모를 적정화하고 평

고등교육의 팽창은 양적인 측면에서 과잉 교육 투자 논란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비효율성 논란을 유발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청년 실업, 특히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 괴리 문제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과잉 문제와는 별도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 문제를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특정한 직업능력의 배양을 통해 직업세계와 연관을 맺는다. 따라서 전공분야별 인력의 양성과 이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평가는 고등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직업전망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전공별 인력 양성을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임금 등의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대학 교육의 사회에 대한 순 기능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발현된다. 이 때 대학 재학 중의 노력과 성취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특히 전공은 대학 재학 중에 획득하는 숙련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대졸자라고 하더라도 전공의 난이도에 의해 획득하는 숙련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Daymont and Andrisani(1984)는 생산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의 1/3~2/3은 남녀 간의 전공과 직업 선호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대학 전공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의 직업 준비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공학, 자연과학, 수학을 전공한 개인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에 비해 12~27%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Grogger and Eide(1995)는 1980년대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원인을 대졸자의 전공 분포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임금 프리미엄은 전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

가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 등이다.

으며, 저숙련 전공으로부터 고숙련 전공으로 대학 전공자 분포의 변화가 대졸 임금프리미엄의 1/4을 설명하고 있다.

Loury and Garman(1995)는 교육년수가 동일하더라도 전공이나 학업성적 등의 대학 교육성취도와 함께 대학 입학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학 선택성(selectivity)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공을 포함한 대학 재학시의 교육성취도를 누락할 경우, 대학 입학 성적의 추정치는 편의를 가지게 됨을 분석하고 있다. 대학 전공과 학업 성적 등 대학 재학 중의 성취도를 통제할 경우, 대학 입학시 요구되는 시험 성적(SAT)의 임금 효과는 크게 하락한다.

한편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이 대학에서 획득한 숙련의 차이가 아니라 특정한 직업으로의 이동을 매개하는 효과일 수 있다. 만약 대학에서의 전공이 단순히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이 인적자본 내용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James, Alsalam, Conaty and To(1989), Grogger and Eide(1995)는 직업을 추가로 통제하고서도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여, 전공이 숙련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공별 임금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장수명(2002)은 대학 전공 선택의 임금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의학 계열을 제외한 전공의 임금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전공이 임금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영섭(2003)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중앙고용정보원)를 이용하여 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확률을 고려한 전공별 생애 기대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를 학교-노동시장 이행, 임금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전공별 인력 양성이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라 조응하여 왔는지,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전공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전공별로 임금 효과가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전공을 통한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담당하여 왔는지를 평가한다.

### III. 대학 전공별 인력의 양성 추이

대학 교육이 산업 수요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합하게 조응하느냐는 전공분야의 변천과정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대외적인 경쟁환경 속에서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발전에 의해 인력수요 또한 급변하여 왔다. 전공분야는 전문인력 수요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인력수요의 변화에 교육과정과 내용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전공분야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은 급격한 외연적 확대과정에서 끊임없는 학과의 분화와 확장을 경험하여 왔다. 또한 학부제의 도입에 따라 학과의 통합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세부적인 학과 단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1984년 3,334개에서 2002년 9,659개로 급증하여 온 대학 학과의 변천에 대한 분석은 방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거나 계열별 졸업생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분포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2003년 현재 이공계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 인문계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분포는 시기별로 변화하여 왔다. 우선 인문계와 사회계의 졸업자 비중은 1980년대 중반에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대학 졸업생 가운데 인문계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0.5%에서 1988년 17.7%를 정점으로 급증하였으며, 사회계 졸업생 비중 또한 1981년 18.8%에서 1991년 27.8%라는 정점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 인문사회계 대졸자수가 이공계 대졸자수를 훨씬 앞지르면서 대학교육의 인문화가 심화되었으며, 이후 인문사회계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공계 졸업생 비중은 1980년대 중반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8년 32.8%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한 후 4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범계 졸업생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의약계 졸업생 비중의 다소 감소는 직업관련 전공분야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열별 졸업생 분포는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현재 여성의 이공계 졸업자 비중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인문계, 예체능계, 사범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여성의 계열 선택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처음 대졸자가 급증하였던 1980년대 초반에 여성의 인문계 편중이 두드러졌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이공계 전공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여성의 사회계열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상의 계열별 졸업생의 분포 추이는 교육과정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의 1980년대 대학 졸업자의 전공이 공학과 경영학 등으로 크게 변화하여 온 사실(Grogger and Eide, 1995)에 비추어 보면, 계열별 인력 양성 분포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졸업정원제의 시행 이후 고등교육의 인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 
- 3) 유럽 연합의 고등교육 전공계열을 직업 지향적인 전공과 학문 지향적인 전공으로 구분할 때, 직업 지향적인 전공이 70.3%를 차지하고 있다(Bainbridge et al., 2004, p.97).

〈표 2〉 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졸업생수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전체	1981	55,846	10.5	18.8	40.1	6.3	7.3	17.1
	1985	118,584	15.8	23.2	35.1	4.0	6.3	15.6
	1990	165,916	17.2	27.2	34.7	4.1	6.9	10.0
	1995	180,664	15.5	25.8	39.9	4.0	7.8	7.1
	2000	214,498	15.1	26.5	39.9	4.3	8.5	5.8
	2003	257,526	15.1	25.3	40.4	4.5	9.3	5.4
남	1981	39,263	8.9	23.9	47.8	5.3	2.6	11.4
	1985	75,813	11.6	29.7	43.5	3.8	2.1	9.4
	1990	104,627	11.8	33.6	41.9	3.7	3.2	5.8
	1995	105,853	9.9	31.0	47.8	3.9	4.2	3.1
	2000	113,573	9.5	28.3	50.5	4.0	5.0	2.7
	2003	134,095	9.1	26.1	52.9	3.8	5.4	2.8
여	1981	16,583	14.0	6.5	21.9	8.7	18.4	30.5
	1985	42,771	23.4	11.7	20.1	4.4	13.7	26.7
	1990	61,289	26.3	16.3	22.3	4.8	13.1	17.2
	1995	74,811	23.3	18.3	28.6	4.1	12.9	12.7
	2000	100,925	21.4	24.4	27.9	4.6	12.4	9.3
	2003	123,431	21.6	24.5	26.9	5.2	13.6	8.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IV. 대학 전공별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실태와 성과

전공별로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통계청이 2004년 5월에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한다. 동 부가조사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시기, 최종학교 소재지, 직업훈련 경험, 재학중 직장체험, 취업 횟수,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 첫 직장의 취직·이직 시기, 이직 사유, 첫 직장의 산업 및 직업, 취업경로, 전공 일치도 등 이행과정에 대해 14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전공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경과된 기간, 이른바 이행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3>은 전공분야별로 이행기간과 취업 미경험률이 제시되어 있다. 이행기간은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경과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취업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right censored)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조사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첫 일자리를 취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을 계산할 때 0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부가조사에서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이행기간은 과대계산된 것임을 밝힌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경과한 기간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평균 6.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대졸자 가운데 20.8%는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취업을 경험하였으며, 졸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비중은 70.6%에 이른다. 그리고 21.1%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관심인 전공별 이행기간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순으로 평균 이행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반면 직업관련 전공분야인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이행기간은 각각 3.6개월, 5.4개월로 평균 수준보다 낮다.

한편 전공별 이행기간의 차이가 지역별로 다른가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대전·충청 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전공별 차이는 유지되면서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비해 빠르게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관련 전공분야인 의약계열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교육계열은 오히려 비수도권 졸업자의 첫 취업이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방 대학 자연계열 졸업자와 공학계 졸업자의 이행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전공별로 이행기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조사 시점에서 취업 미경험자의 이행기간은 우측절단된 불완전한 값이므로, 이를 고려한 해자드 분석을 이용하였다. 해자드 모형은 관측기간 동안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해자드의 분포에 대한 함수 <표 3> 대학 졸업자의 전공별 이행기간

(단위: 천명, %, 개월)



	표본수	이행기간							평균	취업 미경험률	
		<0	0~ 2개월	3~ 5개월	6~ 11개월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1294.1	(20.8)	(33.6)	(16.2)	(8.3)	(11.9)	(4.3)	(4.9)	6.89	10.0	
인문사회계열	532.0	(20.1)	(32.4)	(17.2)	(9.0)	(12.5)	(3.9)	(5.0)	6.82	10.8	
자연계열	165.7	(20.7)	(26.5)	(19.7)	(11.0)	(12.0)	(4.3)	(5.8)	8.02	10.3	
공학계열	352.7	(24.9)	(29.0)	(17.2)	(7.3)	(12.1)	(3.8)	(5.8)	7.32	11.0	
의약계열	44.7	(10.9)	(62.1)	(15.3)	(1.5)	(4.3)	(4.2)	(1.8)	3.62	4.4	
예체능계열	102.9	(28.0)	(38.2)	(13.3)	(4.2)	(8.7)	(2.6)	(5.0)	5.39	9.8	
사범계열	96.2	(7.2)	(51.1)	(4.7)	(11.2)	(14.2)	(10.0)	(1.7)	6.89	4.1	
인문사회 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315.3 216.7	(20.5) (19.5)	(34.0) (30.1)	(17.8) (16.3)	(7.5) (11.2)	(12.9) (11.9)	(2.9) (5.3)	(4.5) (5.8)	6.30 7.59	9.3 13.0
자연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86.8 78.9	(23.9) (17.1)	(28.8) (24.0)	(17.2) (22.5)	(9.6) (12.6)	(11.0) (13.0)	(3.7) (5.0)	(5.7) (5.9)	7.26 8.86	9.0 11.8
공학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202.3 150.4	(29.3) (19.0)	(28.8) (29.2)	(16.4) (18.4)	(7.2) (7.4)	(11.5) (12.9)	(2.2) (5.8)	(4.7) (7.3)	6.32 8.66	9.3 13.2
의약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24.4 20.3	(9.5) (12.5)	(69.4) (53.2)	(9.5) (22.3)	(1.0) (2.1)	(5.9) (2.4)	(1.5) (7.5)	(3.3) (0.0)	3.66 3.57	1.9 7.5
예체능 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62.0 40.9	(28.3) (27.6)	(44.4) (28.8)	(11.8) (15.5)	(3.5) (5.2)	(7.6) (10.4)	(1.8) (3.9)	(2.6) (8.6)	3.82 7.77	10.4 9.0
사범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43.5 52.6	(9.3) (5.4)	(51.4) (50.9)	(4.7) (4.6)	(7.5) (14.2)	(11.9) (16.2)	(12.6) (7.8)	(2.7) (0.8)	7.34 6.51	4.7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4.5

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설명변수가 해자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Cox 모형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인문사회계열을 기준범주로 하는 전공별 더미와 함께 성, 졸업한 대학 소재지, 직업훈련 경험 여부,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 졸업·중퇴 시점의 실업률, 학교 졸업 후 경과기간 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최중 학교 소재지를 강원·제주 지역을 기준범주로 하여,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부산·경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대전·충청 지역, 광주·전라 지역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력형성 활동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과 재학 중 근로경험 관련 변수를 통제하였다. 한편 지역내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졸업 시점의 분기별 지역 실업률을 추가하였다.

<표 4>에서는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과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탈출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의 첫 일자리의 탐색기간이 여성보다 길기 때문이거나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한편 학교교육 이외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전체 표본의 1/3에 이르지만, 첫 일자리를 신속하게 획득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훈련 경험을 재학 중에 받았는지, 아니면 졸업 후에 받았는지로 구분하여 보면,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은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졸업 후에 직업훈련을 받은 졸업생은 훈련을 받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이행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훈련받는 동안은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lock-in)을 고려하면, 훈련이 노동시장 이행의 장기화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졸자 표본의 과반수가 재학 중에 근로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경험은 유의하게 첫 일자리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학 중 근로경험을 세분화하여 보면, 전일제로 취업하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경험은 유의하게 첫 일자리 탈출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경험을 가진 자가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학교-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실한 현장실습은 오히려 직업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기업 인턴이나 정부가 실시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관련 근로경험을 가진 표본이 적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졸업 시점의 지역 실업률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유의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가 청년층의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인 전공분야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이 인문사회계열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히려 출신 대학의 소재지가 노동시장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대전·충청 등의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탈출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광의의 전공분야 분류를 이용한 분석결과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이상의 결과는 특정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전공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전공분야가 첫 일자리 취업 해자드에 미치는 영향 : Cox 해자드 분석

	표본특성		(1)			(2)		
	평균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1. 여성 [남성]	0.624	(0.484)	0.097	0.053	*	0.098	0.054	*
2. 전공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0.075	(0.264)	0.152	0.095		0.137	0.095	
교육계열	0.080	(0.272)	0.083	0.091		0.044	0.096	
자연계열	0.135	(0.342)	-0.049	0.075		-0.057	0.075	
공학계열	0.258	(0.437)	0.028	0.063		0.019	0.063	
의약계열	0.040	(0.196)	0.364	0.121	***	0.353	0.123	***
3. 출신대학 소재지 [강원·제주]								
서울·인천·경기	0.302	(0.459)	0.451	0.111	***	0.431	0.111	***
부산·경남	0.175	(0.380)	0.311	0.115	***	0.276	0.116	**
대구·경북	0.111	(0.315)	0.368	0.121	***	0.334	0.122	***
광주·전남	0.160	(0.366)	0.133	0.117		0.121	0.117	
대전·충청	0.189	(0.392)	0.429	0.112	***	0.415	0.112	***
4. 훈련 경험 [없음]	0.328	(0.470)	-0.155	0.053	***			
재학중 훈련 경험	0.179	(0.383)				0.071	0.067	
졸업후 훈련 경험	0.110	(0.313)				-0.390	0.080	***
재학중 및 졸업 후 훈련 경험	0.039	(0.194)				-0.251	0.129	*
5. 재학 중 근로경험 [없음]	0.556	(0.497)	0.270	0.049	***			
전일제 취업	0.138	(0.345)				0.345	0.073	***
아르바이트	0.328	(0.469)				0.215	0.056	***
학교 현장실습	0.069	(0.253)				0.171	0.104	
기업 인턴	0.009	(0.094)				0.279	0.241	
정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0.012	(0.111)				0.222	0.218	
6. 졸업시점의 지역 실업률	4.478	(1.814)	-0.068	0.014	***	-0.069	0.014	***
-2Log L				24136.7			24107.694	
N				2,003				

주: [ ]은 기준변수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4.5

신속하게 획득한 첫 일자리가 반드시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가진 일자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첫 일자리로의 이행과정과 관련된 경험을 통제하고서 전공분야가 첫 일자리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 일자리의 질을 크게 상용직<sup>4)</sup>과 고용자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이를 제외한 임

4)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직장 이동의 경험이 없는 현재의 취업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종사상 지위를 묻고 있지만, 직장 이동의 경험이 있는 취업경험자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를 달리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이동의 경험이 있는 취업경험자의 첫 일자리를

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구분하였다.

<표 5>는 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관한 더미 변수이며, 설명변수는 앞서의 추정모형에 사용한 변수와 함께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두 번 이상 취업 경험 여부 등의 이행과정 관련 변수를 추가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정적인 첫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 앞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첫 일자리를 신속하게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의 질이 나은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취업을 위하여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은 첫 일자리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직업훈련 경험이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훈련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훈련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지만, 훈련이 첫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훈련의 직업능력 제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 또한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취업 경험은 졸업 이후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직업능력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경력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은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장기화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탐색적인 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대학 전공분야가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예체능계열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에도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은 안정적인 첫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한편 출신대학의 소재지는 앞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첫 일자리의 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특정 직업과 관련된 전공분야, 예컨대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하고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나 첫 일자리의 질 등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과가 전공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요약된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를 안정적인 일자리에 포함하였다.

〈표 5〉 전공분야가 첫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 로짓 분석

	(1)		(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309	(0.261) ***	1.313	(0.261) ***
1. 여성 [남성]	-0.444	(0.123) ***	-0.424	(0.124) ***
2. 전공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0.472	(0.196) **	-0.458	(0.197) **
교육계열	0.488	(0.213) **	0.387	(0.221) *
자연계열	0.058	(0.168)	0.059	(0.169)
공학계열	0.085	(0.144)	0.067	(0.145)
의약계열	1.073	(0.352) ***	1.005	(0.356) ***
3. 출신대학 소재지 [강원·제주]				
서울·인천·경기	0.007	(0.245)	0.009	(0.246)
부산·경남	-0.132	(0.258)	-0.141	(0.259)
대구·경북	-0.307	(0.273)	-0.317	(0.274)
광주·전남	-0.087	(0.264)	-0.081	(0.266)
대전·충청	-0.224	(0.255)	-0.227	(0.256)
4. 훈련 경험 [없음]	0.058	(0.119)		
재학중 훈련 경험			0.201	(0.153)
졸업후 훈련 경험			-0.202	(0.176)
재학중 및 졸업 후 훈련 경험			0.131	(0.294)
5. 재학 중 근로경험 [없음]	-0.131	(0.112)		
전일제 취업			0.087	(0.171)
아르바이트			-0.298	(0.126) **
학교 현장실습			0.094	(0.249)
기업 인턴			0.069	(0.584)
정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0.059	(0.502)
6. 첫 일자리 이행기간	-0.005	(0.005)	-0.004	(0.005)
-2 Log L		2024.716		2014.015
N	1,713			

주: [ ]은 기준변수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4.5

## V.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

### 1. 자료 구성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1998~2002년) 자료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개인의 전공분야를 정확히 식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공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는 1차년도 자료의 개인별 학과명과 4차년도 자료의 개인별 전공분야 정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학과명을 이용하여 전공분야를 재분류하였다<sup>5)</sup>.

전공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류재우(2004)와 유사하다. 대학 졸업자의 학과에 대한 정보는 1차년도 개인 조사, 2~3차년도 신규 조사에서만 이루어졌는데, 편입 또는 대학 재학 중 재수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다닌 대학 학과를 그 사람의 학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1차년도 개인 조사, 2~3차년도 신규 조사에서의 대학 학과 정보를 결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개인의 학과 정보를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학과 분류(2003년)에 따라 인문계열, 경상학(경영 및 경제), 법학,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계열의 9개 범주의 전공분야로 분류하였다<sup>6)</sup>.

표본은 개인 및 신규 조사자를 포함하여 전공분야를 식별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로 구성하였다. 전공에 따라 대학원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아니라 대학원 졸업자도 포함하였다. 한편 대학 졸업자 응답자의 학교명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연령이 65세 이상인 표본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원격교육을 통해 사회인에게 계속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

5) 4차년도 조사에서는 과거에 다닌 적이 있는 대학에 대한 전공분야를 묻고 있다. 그러나 4차년도에 조사된 전공분야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전공분야로 전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차년도에 조사된 학과 정보와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4차년도 자료에서는 전공분야를 정확히 응답하지 않고 단순히 광의의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로 응답한 오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학과명을 이용하여 전공분야를 분류하였다.

6) 그러나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에 관한 실제 분석에서는 교육계열의 임금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생각하여, 교육계열을 제외하였다.

대학의 졸업자는 일반 대학 졸업자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나아가 대학 입학성적 순으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학성적 정보를 개인별로 추가하였다. 이 때 입학성적은 각 개인이 진학한 대학의 개별 학과별로 입학한 연도의 평균 입학성적을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이다. 이러한 학과별 평균 입학성적은 대학 이전에 획득한 인지적 능력이 우수한 개인을 선별하는 대학의 서열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성된 표본은 1,820명의 6,078개 관측치이며, 실제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설명변수의 누락이 없고 대학 학과별 입학 성적 백분위 점수가 있는 임금근로자 1,056명의 2,922개 관측치이다.

## 2. 분석결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을 회귀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로그 월 평균임금은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설명변수에는 성과 함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실제 경력년수를 포함하였다. 한편 근속년수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공 선택에 따라 직업과 근속년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 배경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으며, 경기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 더미를 추가하였다. 우리의 관심인 전공분야는 인문학 졸업자를 기준범주로 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으며,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적 효과를 판별하기 위하여 입학연도가 1981~1995년인 졸업정원제 세대 코호트와 입학연도가 1996년 이후인 대학설립 준칙주의 세대 코호트를 포함하였다.

<표 6>에는 추정에 사용된 표본 특성과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며, 경력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진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교육 기회나 전공 선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가 매우 높은 임금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임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의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을 보면, 의약학 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임금프리미엄을 받으며, 이어서 공학, 법학, 사회과학, 경영학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임금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자연과학 전공자는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유의한 임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 정원정책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추정모형에 포함한 입학연도 코호트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졸업정원제 세대인 1981~1995년 대학

입학 코호트는 그 이전에 입학한 코호트에 비해 유의한 임금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입학 코호트는 노동시장 경력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

	표본 특성		추정결과		
	평균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4.536	(0.055)	***
1. 여성 [남성]	0.265	(0.441)	-0.335	(0.021)	***
2. 경력년수(년)	8.820	(7.903)	0.025	(0.002)	***
3. 아버지 교육년수(년)	9.856	(3.808)	0.009	(0.003)	***
4. 어머니 교육년수(년)	6.433	(4.008)	0.008	(0.004)	**
5. 학력 [대졸]					
석사 졸업	0.099	(0.299)	0.138	(0.027)	***
석사 중퇴	0.034	(0.180)	-0.128	(0.044)	***
박사 졸업	0.015	(0.123)	0.623	(0.066)	***
박사 중퇴	0.005	(0.074)	0.066	(0.109)	
6. 전공 [인문학]					
경영학	0.217	(0.412)	0.078	(0.027)	***
법학	0.045	(0.207)	0.115	(0.043)	***
사회과학	0.081	(0.273)	0.089	(0.035)	**
공학	0.294	(0.456)	0.136	(0.026)	***
자연과학	0.132	(0.339)	0.031	(0.030)	
의약학	0.028	(0.165)	0.303	(0.052)	***
예체능	0.054	(0.226)	-0.018	(0.040)	
7. 대학 입학 코호트					
[1981년 이전 입학 코호트]					
1981-95년 입학 코호트	0.715	(0.452)	0.022	(0.028)	
1996년 이후 입학 코호트	0.052	(0.222)	-0.153	(0.048)	***
8. 조사연도 [1998년]					
1999년	0.207	(0.405)	-0.027	(0.024)	
2000년	0.188	(0.391)	0.043	(0.025)	*
2001년	0.189	(0.391)	0.036	(0.026)	
2002년	0.196	(0.397)	0.102	(0.026)	***
Adj R-Sq			0.358		
N			2,922		

주: [ ]은 기준변수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표 7〉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 : 학과별 입학 성적 및 직업 통제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4.064	(0.075)	***	3.422	(0.090)	***
1. 여성 [남성]	-0.335	(0.021)	***	-0.347	(0.020)	***
2. 경력년수(년)	0.025	(0.002)	***	0.025	(0.002)	***
3. 아버지 교육년수(년)	0.007	(0.003)	***	0.005	(0.003)	**
4. 어머니 교육년수(년)	0.007	(0.004)	**	0.006	(0.003)	
5. 학력 [대졸]						
석사 졸업	0.119	(0.027)	***	0.094	(0.026)	***
석사 중퇴	-0.137	(0.044)	***	-0.162	(0.042)	***
박사 졸업	0.564	(0.065)	***	0.544	(0.064)	***
박사 중퇴	0.032	(0.108)		-0.005	(0.105)	
6. 전공 [인문학]						
경영학	0.056	(0.027)	**	0.075	(0.026)	***
법학	0.076	(0.043)	*	0.067	(0.042)	
사회과학	0.069	(0.034)	**	0.054	(0.033)	
공학	0.125	(0.067)	*	0.128	(0.065)	**
자연과학	0.048	(0.065)		0.061	(0.063)	
의약학	0.249	(0.074)	***	0.239	(0.072)	***
예체능	0.196	(0.147)		0.208	(0.143)	
7. 대학 입학 코호트						
[1981년 이전 입학 코호트]						
1981-95년 입학 코호트	0.041	(0.028)		0.040	(0.027)	
1996년 이후 입학 코호트	-0.088	(0.048)	*	-0.099	(0.047)	**
8. 학과 입시 성적	0.006	(0.001)	***	0.005	(0.001)	***
9. 직업 [단순노무직]						
관리자				0.919	(0.072)	***
전문가				0.734	(0.057)	***
준전문가				0.725	(0.056)	***
사무직				0.732	(0.057)	***
판매서비스직				0.643	(0.064)	***
기능원				0.605	(0.071)	***
기계조작원				0.508	(0.078)	***
10. 조사연도 [1998년]						
1999년	-0.024	(0.024)		-0.012	(0.024)	
2000년	0.050	(0.025)	**	0.069	(0.025)	***
2001년	0.042	(0.026)		0.065	(0.025)	**
2002년	0.114	(0.025)	***	0.134	(0.025)	***
Adj R-Sq		0.376			0.419	
N	2,922					

주: [ ]은 기준변수이며,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한편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의 격차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일부 전공에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 학과별 평균 입학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7>의 추정결과를 보면, 백분위 점수로 환산된 대학 학과별 평균 입학성적은 대학 졸업 후의 임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이전의 인지 능력이 우수한 개인의 생산성이 높거나, 입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 순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서열화가 노동시장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대학 이전의 입학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공을 통해 대학에서 획득한 전문적인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이다. 대학 전공의 임금 효과를 보면, 앞서의 추정결과 <표 6>과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전공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법학 전공자는 입학 성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11.5%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입학 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7.6%로 크게 하락하였다. 임금 프리미엄의 하락은 법학, 경영학, 사회과학, 의약학 순으로 두드러지며, 반면 공학의 임금 프리미엄 감소는 그다지 크지 않다<sup>7)</sup>.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의 격차 가운데 1/5~1/3은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학생이 특히 법학·경영학·의약학 등의 전공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은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교육 외에도 특정한 직업 렌트와 연관될 수 있다. 이에 모형 2는 직업 대분류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공 관련 직종을 세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과 사회과학 전공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였으며, 의약학 전공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의하지만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공학과 경영학 전공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VI.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문제를 대학 전공별 노동시장 성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졸업생의 인력 양성 추이는

7) 학과별 평균 입학성적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임금 프리미엄의 감소폭은 법학 34.3%( $(0.076-0.115)/0.115 \times 100$ ), 경영학 28.5%, 사회과학 23.0%, 의약학 17.8%, 공학 8.2%이다.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이 노동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하여 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둘째, 특정 직업과 관련된 전공분야, 예컨대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하고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나 첫 일자리의 질 등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과가 전공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은 의약학, 공학, 법학, 경영학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학 학과별 평균 입학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 대학 전공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의 임금 효과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중사하는 직업을 통제하였을 때 의약학, 공학, 경영학을 제외한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별 임금 프리미엄의 격차가 직업 렌트가 있는 전공분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데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대학 전공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가 특정한 직업관련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학한 대학의 서열이 중시되는 학력주의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의 서열화 또한 전공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 서열이 아니라 대학 입학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 획득한 대학 입시 성적의 서열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 교육이 산업 발전과 노동시장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양적인 조정만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편성·운영되고 산학협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정보 공시제’는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전공별 시간강사 강의비율, 예·결산 내역 등 교육여건과 관련된 정보만이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률 등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상시 공개함으로써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직업 전망에 기초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별 취업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광의의 전공분야 분류에 기초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 학과별로 그 변화와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공별 임금 성과 분석 또한 취업한 임금근로자에 국한되어 있다. 의약학·법학·경영학 등 창업 등이 활발한 전공분야의 노동시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는 자영소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9),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안)」
- 김형만(2004), 「고등교육 인력 양성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정책협력망 워크샵 발표문
- 류재우(2004), 「과학기술 인력의 노동시장 성과 및 근래의 성과」,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pp. 107~134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장수명(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pp. 47~79
- 최영섭(2003), 「대학 이상 졸업자의 계열별 기대소득 격차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pp. 97~127
- Bainbridge, S., J. Murray, T. Harrison, T. Ward(2004), *Learning for Employment: Second report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Berger, M. C.(1988), "Predicted Future Earnings and Choice of College Maj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1, No. 3, pp. 418-429
- Daymont, T. N. and P. J. Andrisani(1984), "Job Preferences,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Gap in Earning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9, No. 3, pp. 408-428
- Grogger, J. and E. Eide(1995), "Changes in College Skills and the Rise in the College Wage Premium,"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0, No. 2, pp. 280-310
- James, E., N. Alsalam, J. C. Conaty and D. To(1989), "College Quality and Future Earnings: Where Should You Send Your Child to Colle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2, pp. 247-252
- Loury, L. D. and D. Garman(1995), "College Selectivity and Earning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3, No. 52, pp. 289-308

Murphy, K. M., A. Shleifer and R. W. Vishny(1994), “The Allocation of Tal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pp. 503-30